

No.20161005-001

제목: 희망

저자: 시즈쿠이 슈스케

페이지수: 352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05일



<내용소개>

**아들은 사건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갑자기 닥친 비극 앞에 흔들리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

가족이란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하는 관계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가족이라서 숨기는 부분이 있다. 또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심하게 흔들리기도 한다.

도쿄에서 건축 디자인 일을 하는 카즈토는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이다. 프리랜서 교정가로 활동 중인 아내 키요미, 고교 1학년인 아들 타다시, 중학교 3학년인 딸 미야비와 평화롭게 살아왔다. 하지만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던 아들 타다시가 시합 중 부상을 당하고 축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가족의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다. 타다시는 여름방학 동안 불량해 보이는 친구들과 밤에 놀러 나가거나 무단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진다. 방황기를 겪는 것인지, 훌훌 털고 일어나 다른 것을 시작할 의욕도 생각도 없어 보인다. 방학이 끝나가는 9월의 어느 주말, 타다시는 연락이 두절된 채 이틀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타다시의 친구가 사망한 채 발견된다. 행방불명 된 소년은 총 3명, 용의자로 의심되는 도주자 두 명과 아들 타다시. 설상가상으로 타다시가 사망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아니면 이미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떠돈다.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즈토 부부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범인을 탐색하는 것보다, 카즈토 가족이 직면하는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타다시가 사건에 얽힌 것이 분명하다면, 가해자 가족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가 죽은 피해자 가족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가. 가족의 생계와 딸의 장래와도 깊이 연관된 일이다. 카즈토 부부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자신들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빠진다. 키요미는 타다시가 죽은 피해자보다 살아있는 가해자인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범인이 아닐 거라며 타다시를 감싸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새겨들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인 카즈토는 범죄자의 가족이 되느니 차라리 아들이 죽은 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독자들은 비정상적인 그들의 심리상태를 보며 만약 나의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다룬다. 가족, 부부, 자기자신의 마음까지도 시험해야 하는 잔인한 설정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아맨다. '인간의 도리'와 '개인의 희망'의 간극이 빚어낸 미스터리 속에서 어떤 결말을 희망하게 될까?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묘미를 제공하는 수작이다.

**<저자소개>**

시즈쿠이 슈스케

1968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다. 센슈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2000년 《영광일로(榮光一途)》로 제4회 신초미스터리클럽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였다. 2005년 《범인에게 고한다》로 제7회 오야부 하루히코상을 수상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외 작품으로는 《불티》, 《클로즈드 노트》, 《검찰 측의 죄인》, 《가면 동창회》 등이 있다.

No.20161005-002

제목: 밤에 우는 새는

저자: 치하야 아카네

페이지수: 25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08일



### <내용소개>

#### 불로불사의 일족이 현대 도시 속으로 섞이면서 벌어지는 다크 판타지 소설

몇 년 전 크게 흥행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 도민준은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었다. 조선시대부터 400년을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젊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인 채 죽지 않는 존재. 고대시절부터 여러 권력자들이 찾아 헤맸던 '불로불사'는 이제 판타지 작품 속 단골 소재다.

이 소설에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자들이 등장한다. 아주 먼 옛날, 몸에 난 상처나 성장을 먹어버리는 특수한 벌레를 체내에 키우며 살아가는 일족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바닷가 마을에 숨어, '야오비쿠니' 혹은 '실라'라고 불리는 시조를 받들면서 아주 오랜 시간 살아왔다. 주인공 '미사키'는 일족의 후예 중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어 어떤 상처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150년 이상 살았다고 보이지 않는 10대의 얼굴에 남녀 양성이다. 그는 경외로운 존재로서 족장으로 추앙 받는다. 미사키 외의 숙주들은 힘이 약하여 일족은 서서히 멸망해가는 상황이다. 미사키는 정부 고관이나 지하세계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보스 등 권력자들에게 상처와 병을 낫게 해주는 시술을 행하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신사에서 '윤'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마주친다. 미사키는 그에게서 일족들이 갖고 있는 벌레의 냄새를 느끼고 행방을 뒤쫓기 시작하고, 결국 측근이자 자신의 고손자인 '마사치카'만 데리고 마을을 떠난다. 미사키는 꿈을 통해 시조부터 대대로 내려온 기억을 짚어가며 대도시인 도쿄로 향한다. 그리고 윤이 마을 사람들 모르게, 마을 밖에서 태어나 살아온 실라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와 함께 행동한다.

이후에는 미사키와 마사치카, 윤 이 세 사람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 죄와 후회가 드러나고 시간을 초월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당하고 과거의 인연에 시달리면서도 미사키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지켜본다. 미사키는 왜, 무엇을 찾아서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마을도 버린 것일까?

작가의 강점이 발휘되는 다크 판타지 계통의 이야기다. 불로불사 일족의 후손들이 현대의 도시

속으로 들어와 섞여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들이 흥미진진하다. 어둠 속에서 벌레들이 초록색으로 빛나는 환상적이고도 기이한 풍경을 상상하며 읽어보자. 마지막 장을 덮을 때면 앞으로 미사키가 온과 어떤 사건을 또 만나게 될지, 다음 내용이 궁금해질 것이다.

**<목차소개>**

실라 / 날갯짓 / 올빼미 / 도깨비 불 / 신 / 진달래

**<저자소개>**

치하야 아카네

1979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으며, 리츠메이칸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보냈다. 2008년 《어신(魚神)》으로 제21회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같은 작품으로 제37회 이즈미교카 문학상도 수상하였다. 2013년 《흔적》으로 제20회 시마세 연애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외 작품으로는 《새롭게 해석한 서양동화집》, 《불가사의한 책》, 《읽히다》, 《숲의 집》, 《벚꽃 목걸이》, 《남자친구 하세요》, 《서양과자점 뷔티풀》, 《잠의 정원》 등이 있다.

No.20161005-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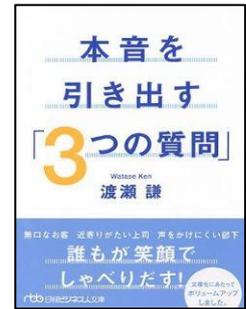
제목: 진심을 이끌어내는 3가지 질문

저자: 와타세 켄

페이지수: 208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9월 02일



### <내용소개>

####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테크닉이 성공의 키워드! 누구나 활용 가능한 궁극의 대화 스킬

최근 업계나 직무에 관계 없이 채용 공고에 빠지지 않는 조건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대인 업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활한 소통 능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만큼, 사내·외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제일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당연하게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타인이 지적하는 순간에야 깨닫거나, 속내를 밝히기 싫어서 거짓으로 둘러대는 경우도 많다는 허점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진심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저자가 영업사원 및 영업 컨설턴트로서 깨달은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대화방식을 바꿈으로써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었다. 고객이 진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업사원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3가지 질문의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과거에 대한 질문 → 현재에 대한 질문 → 미래에 대한 질문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답변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물론 고객뿐 아니라 사내, 사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방식이다.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쌍방이어야 할 대화가 일방통행이 될 때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득시킨 다음, 3가지 질문 시스템을 롤플레이팅과 좋은 예/나쁜 예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토크 비결을 기억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기 전에 알아내 정확하게 제안하면 신뢰도와 평판이 단번에 올라갈 것이다. 상사가 요구를 업무에 척척 반영하는 부하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연인이나 친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점진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가 여기 있다.

3가지 질문을 확실히 적용한다면, 말주변 없고 내향적인 사람도 커뮤니케이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2011년 출간된 《상대방이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는 3가지 질문》의 개정본으로, 이미 그 효과를 입증 받은 데다가 몇몇 포인트 내용이 추가돼 더욱 유익해졌다.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 신뢰를 얻는 스킬을 익힘으로써 인생의 진전을 이뤄내길 바란다.

#### <목차소개>

서장: 진심을 안다! 대화가 활기를 띤다! 신뢰를 얻는다!

제 1장: 왜 사람은 진심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제 2장: 상대의 진심을 알면 비즈니스가 크게 변한다

제 3장: 진심을 이끌어내는 「3가지 질문」

제 4장: 3가지 질문을 고급 응용해보자

제 5장: 진심을 억누르는 것은 비즈니스를 억누른다

#### <저자소개>

와타세 켄

Silent Sales Trainer, 유한회사 PICTWORKS 대표이사.

어릴 때부터 극도로 낯을 가리고 중학교 시절에도 반에서 가장 말이 적은 성격이었다. 메이지대학 졸업 후, 정밀기기 제조 회사를 거쳐 (주)리쿠르트로 이직한다. 이색적인 과묵한 영업 스타일로 입사 10개월 만에 영업 달성률 전국 톱이 된다. 1994년 유한회사 PICTWORKS를 설립하고 광고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종사한다. 사업을 영업사원 교육 분야로 옮겨 일본생명보험,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을 비롯해 유명 기업에서 컨설팅과 연수 및 강연을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내향적인 영업사원의 세일즈 방식에는 비결이 있다》, 《내향적인 사람을 위한 잡담 기술》, 《'말하지 않는 영업'의 기술》, 《상대가 말하게 하는 잡담 기술》,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등 다수가 있다.

No.20161005-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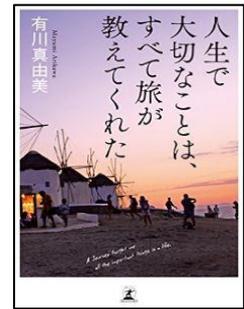
제목: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전부 여행이 알려주었다

저자: 아리카와 마유미

페이지수: 248

장르: 여행,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9월 08일



### <내용소개>

#### 타이완, 그리스, 필리핀, 이스라엘을 여행하며 만난 세상과 사람들이 남겨준 인생의 교훈

사람과 상황에 따라 여행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삶의 노고로 가득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과 특별하게 공유할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등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떠난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리조트에서 놀고 쇼핑에 매진하는 여행도 필요하지만, 그 땅을 직접 밟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력을 찾아내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작가 겸 사진가인 아리카와 마유미는 50여종의 직업을 거친 독특한 이력으로 유명하다. 수십 개의 나라를 여행하고 에세이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책도 자신이 방문했던 몇몇 나라들에 관해 쓴 여행 에세이다.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돈이 없을 때에도 그저 있는 그대로 한 발을 내디뎠던 순간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세계로 향하면서, 여성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리만큼 아름다워진다고 말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라는 부제가 붙은 타이완에서는 옛 일본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던 원주민 동네, 주위의 덕을 톡톡히 보았던 가오슝 생활, 모두 함께 하는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등장한다. 자기 발로 설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에는 다 갈 수 있다며 떠난 그리스에서는 궁극의 절경을 자랑하는 산토리니, 아테네 생활 이야기와 더불어 영화 같았던 사랑의 추억을 고백한다. 필리핀 편은 소외와 차별 속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소수민족 '아이타 족'과의 만남을 풀어놓았다. 이스라엘은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세계를 응축해 놓은 것 같은 예루살렘 구 시가지, 역사적인 '통곡의 벽', 유대인의 정신적 결속 장소 '마사다 요새', 사해와 네게브 사막 등을 이야기하고 후편에서는 신시가지인 텔 아비브, 헤롯 왕의 야망이 숨쉬던 거리 카이자리아, 이스라엘 음식 삭슈카 가게 주인에게 얻은 깨달음 등이 담백한 어조로 서술되어 있다. 열정이 있으면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며, 없던 길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여행기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행이 알려줬다'고 말한다. 세계를 향한 걸음이 일본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진 여정을, 이 책을 통해 나란히 동행해보자.

**<목차소개>**

제 1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 타이완

제 2장: 《자기 발로 서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 그리스

제 3장: 《자기 세계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 필리핀

제 4장: 《'바뀌지 않는 것'을 위해 계속 변한다》 - 이스라엘(전편)

제 5장: 《열정이 있으면 길은 자연히 만들어진다》 - 이스라엘(후편)

**<저자소개>**

아리카와 마유미

작가 및 사진가. 가고시마현 출신이며, 타이완 국립 가오슝 제1과기대학 대학원 응용일본어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화장품 회사 사무직, 학원 강사, 과학관 안내원, 의료품 가게 점장, 기모노 강사, 카피라이터, 결혼 코디네이터, 프리 카메라맨, 신문사, 편집자 등 50여개 직업을 거친 경험을 살려 자신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 및 발표하고 있다. 세계 약 40개국을 여행하면서 여행 에세이와 다큐멘터리도 선보이고 있다. 저서로는 《서른에서 멈추는 여자, 서른부터 성장하는 여자》, 《지금부터, 잘나가는 여자》 등이 있다.

No.20161005-005

제목: 성공하고 싶다면, 뇌에 일류 거짓말을 이야기해라

저자: 니시다 후미오

페이지수: 22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8월 24일



### <내용소개>

#### 언과 재물, 좋은 친구를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줄 뇌 사용법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민낯을 숨기면서 더 생기 있고 화사한 얼굴을 만드는 '화장'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고려해 건네는 빈말도 결국 거짓말이다. 타인에게 페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라면 좋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지도 분야의 선구자인 니시다 후미오는 좋은 거짓말을 잘 쓰면 인생이 변한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그 결과가 차곡차곡 모여 '나'를 구성한다.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친 적이 더 많다면 인생의 기회비용이 높은 '실패자', 기회를 제대로 잡아 이익을 취해왔다면 인생의 기회비용이 낮은 '성공자'다. 저자인 니시다 후미오는 <이미지 디자인>으로 살면서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지 디자인이란,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리 꼼꼼한 성격이 아니지만 주위에서 모두 꼼꼼한 사람일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인 척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1%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분석하여 성공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자기 이미지를 디자인 하려 한다. 긍정적인 평을 받는 정치인들은 이미지 디자인에 가장 숙련된 자들이다. 반면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 연출하는 데 관심이 없다.

성공을 위해 '좋은 거짓말'을 구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4개의 창으로 분류한다. 자신과 타인이 모두 알고 있는 나(개방의 창),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도 방치하고 있는 나(맹점의 창), 타인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숨겨진 나(비밀의 창),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미지의 창)가 그것이다. 이 틀에 맞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 생각/ 동작과 표정' 3개 분야에서 거짓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루고 싶은 것을 입밖에 내며 자기암시하기, 강하고 짧은 키워드를 되뇌면서 기분 전환하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곧바로 반성하지 않기 등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비즈니스와 인간관계로 영역을 확장하여 거짓말을 적절히 응용하는 방법들도 설명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유능한 사람, 운과 재수가 따르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좋은 거짓말을 통해 인생을 생각한 대로 바꿔나가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 <목차소개>

프롤로그: 1%의 성공하는 사람과 99%의 평범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것이 다르다

제 1장: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큰 거짓말

제 2장: 「말」의 거짓으로 행복해진다

제 3장: 「생각」의 힘으로 거짓 결과를 낸다

제 4장: 「동작과 표정」의 거짓으로 성공을 끌어당긴다

제 5장: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짓말

제 6장: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뤄지는 인간관계의 거짓말

에필로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2가지 「거짓말」

#### <저자소개>

니시다 후미오

주식회사 산리 회장. 니시다 학원 학원장, 니시다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49년 생. 1970년대부터 과학적인 멘탈 트레이닝 연구를 시작하여 대뇌생리학과 심리학을 이용해 뇌 기능에 접근하는 획기적인 노하우 《슈퍼 브레인 트레이닝 시스템(SBT)》를 구축했다. 일본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 및 지도의 선구자로 불리며, 경영자와 비즈니스맨의 능력개발을 지도하며 다수의 톱 비즈니스맨을 육성 중이다. <니시다 학원>은 전국 각지의 경영자가 참가하는 스터디로서, 매회 취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신청이 쇄도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멘탈 트레이닝 지도를 통해 일류 운동선수를 다수 배출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저서로는 《NO.1 이론》,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운의 최강법칙》, 《착각의 법칙》 등이 있다.

No.20161005-006

제목: 어른의 여행 준비

저자: 야나기사와 코노미

페이지수: 120

장르: 여행

출간일: 2016년 04월 19일



### <내용소개>

#### 짐 꾸리기 팁부터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 여행 스타일까지, 어른을 위한 여행 '준비' 서적

여행은 목적지를 정하고, 교통편과 숙소를 확보하고, 짐을 꾸리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뭐든 여러 번 거듭 해볼수록 발전하듯이, 여행도 마찬가지다. 각 과정마다 시간을 단축하고 퀄리티 높은 여행을 누릴 수 있는 팁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여행 경력 28년 & 1인 여행 경력 15년의 소유자. 잡지 칼럼 기고가, 카피라이터, 인테리어 수납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직함으로 활동 중인 에세이 작가 '야나기사와 코노미'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좋은 것을 천천히 느끼고 가끔은 사치 비슷한 것을 즐기는 여유가 녹아있는 <어른의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된 그녀. 나이와 직업 같은 것은 잊고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여행의 진정한 매력이라 말한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행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본문은 총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이다. 여행자금을 모으는 방법, 출발 6개월 전/ 3~4개월 전/ 1주일 전/ 1일 전/ 당일에 꼭 해야 할 일, 여행의 테마 정하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초 회화와 요리 및 문화 공부하기 등 기초 내용부터 시작한다. 다양한 소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순서, 맞춤형 지도 만들기, 파트너와 함께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1인 여행시 체크해야 할 사항,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호텔 선정법도 유용하다. 그 다음에는 저자의 여행 준비 과정을 통해 짐 꾸리기 비결을 전수한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챙겨야 할 물건, 짐 가방과 들고 다닐 가방을 고르는 방법, 공간을 절약하는 패킹 팁, 가능한 부피가 작고 가볍게 짐을 싸되 꼭 챙겨야 하는 아이템, 압축백이나 S자 고리처럼 갖고 다니면 의외로 편리한 물품, 가져갈 옷을 선택하는 기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항목마다 이미지로 보충 설명을 해주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삼았던 북유럽 여행, 한적한 거리에서 현지 분위기에 흠뻑 젖었던 베트남 여행 등 저자의 여행담을 소개한다. 당시 입었던 옷, 맛보았던 음식들, 구입한 소품들이 세세하게 사진으로 실려있어 생생하게 다가온다.

여행 일정을 세우는 것부터 소지품 골라내기, 실제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힌트가 담겨 있는 타이틀이지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가기 위한 참고용이다. 유익한 정보만 쓱쓱 골라내어 자기만의 여행을 준비해보자.

**<목차소개>**

Chapter 1.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여행을 떠나는 타이밍 /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 / 목적지는 자유! 등)

Chapter 2. 나의 여행 준비

(메인 가방을 고르는 방법 / 뷰티 아이템이 짐 줄이기의 열쇠 / 여행의 트러블 등)

Chapter 3. 각각의 여행 모양

(북유럽 스웨덴 유스호스텔의 여행 / 베트남 한적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행 / 나고야 무위도식 여행 등)

**<저자소개>**

야나기사와 코노미

에세이스트,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1975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일본대학 예술학부 사진학과를 졸업하였다. 생활에 관계된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믿을 만한 것을 고르는 안목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펠리시모에서 상품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No.20161005-007

제목: 르포 - 아빠들의 갈등: 일과 가정의 양립은 꿈일 뿐인가

저자: 오타 토시마사

페이지수: 234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06월 18일



### <내용소개>

####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빠들의 진심, 그에 대한 아내와 회사의 진심을 파헤치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남성의 저조한 육아&가사 분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며 남자들이 가정에 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아직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절대적이다.

일본에서는 육아에 적극적인 남자를 가리켜 '이쿠맨'이라고 한다. 기르다(育)는 뜻의 '이쿠'와 남자(man)를 합친 신조어다. 2006년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들이 이쿠맨 클럽이란 모임을 만든 것이 언론에 소개되고, 2010년부터 후생노동성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이쿠맨 캠페인'을 벌이면서 널리 퍼졌다. 육아와 가사를 가르치는 학원이 등장하고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아이 키우는 남자는 그냥 "아빠"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별칭이 필요할까? 이쿠맨 같은 용어가 여태 쓰이는 것은 아직 평범하고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저자는 이책에서 왜 일본 사회에서 남성들의 <가정진출>이 이토록 더딘지 묻는다. 가사 쪽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육아 쪽에서는 변화가 저조하다. 이 책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 및 가사에 관련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1장에서는 다수의 데이터를 통해 일과 가정 사이에 움푹달락 못하게 끼어있는 남성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2장에서는 실제로 일과 가정 사이의 딜레마에 처한 남성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3장은 그런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속마음을 파고 들어간다. 4장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말만 해대는 회사의 입장을 알아본다. 이해 당사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종합하여 현재 남성들이 어떤 입장에 놓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과 하락을 각오 한다, 부부간 불평등한 부담을 재조정한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양보다 질에 신경 쓴다, 완벽함을 목표로 무리하게 덤비지 않는다, 남성다움을 의식화 한다, 부부간 불화는 회피하지 말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가족문제를 사회문제로 일일이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쉽게 답을 내지 말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한다 등 총 8가지의 힌트가 가정생활을 도와줄 것이다.

제도가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스스로 블랙기업화 하는 아빠들
- 제 2장: 남편의 진심
- 제 3장: 아내의 진심
- 제 4장: 회사의 진심
- 제 5장: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참지 않는다

**<저자소개>**

오타 토시마사

육아 및 교육 저널리스트.

1973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장남이 태어난 뒤 “지금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2005년에 리쿠르트에서 나와 독립하였다. 다수의 육아지 및 교육지 감수하고 데스크를 역임하며 현재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서적과 칼럼을 집필하고 강연을 하고 있다. 심리 카운슬러 자격도 취득하여 <아빠의 고민상담 골목>에서는 전국의 아빠들에게 고민 사연을 받고 있다. 또한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면허를 갖고 있으며 사립초등학교 교원 경험도 있다. 저서로는 《아빠 취업설명서》, 《추궁하는 부모》, 《르포 학원사회》등이 있다.

No.20161005-008

제목: 히사이시 조의 음악일기

저자: 히사이시 조

페이지수: 254

장르: 음악,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7월 28일



### <내용소개>

#### 히사이시 조가 음악의 이모저모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담은 진중한 에세이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그리고 히사이시 조가 음악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일본 방영본 주제곡을 만들기도 했다. 본래 클래식을 공부하였으나 현대 음악으로 눈길을 돌렸고 다수의 영화 음악을 맡으며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 책은 히사이시 조가 한 명의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연주자로서 음악에 대해 생각한 것을 담은 에세이다. 아침엔 아무 것도 없었지만 잠들 무렵엔 미완성이라 해도 다른 이에게 들려줄 곡이 만들어져 있는 것.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곡'이야말로 자신의 천직이라 소개한다. 최근 신일본 필하모닉을 맡아 클래식을 지휘할 일이 많아진 그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아하고 들어온 클래식 명곡들을 작곡가 시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더 쉽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음악들은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져 온 클래식이 유물이 되지 위해, 현대 음악과 더불어 미래를 전망하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음악가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평범한 프로그램에 고전과 현대 음악을 공존시켜 관객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풀어놓는다. 휘두르다 / 전하다 / 알다 / 생각하다 / 만들다 라는 제목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는 작곡가였던 자신이 클래식을 지휘하게 되기까지, 지휘자다운 생활 등 지휘봉을 휘두르며 했던 생각들이 쓰여있다. 전하다 편에서는 청중에게 어떻게 음악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알다 편에서는 음악-시각-청각을 연관시켜 보다 음악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축들에 대해 설명한다. 생각하다 편에서는 음악과 유대인의 표현, 영화 《졸업》 음악의 이모저모, 음악의 시작과 하모니, 음악의 상업화와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만들다 편에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작곡한다는 것"을 주제로 음악평론가 고누마 준이치와 나눈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히사이시 조의 작품 리스트가 약 30P에 걸쳐 상세히 들어있다.

음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영화음악의 대가가 문자로 엮어낸 '음악'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자.

#### <목차소개>

##### I. 휘두르다

(“제9(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를 지휘하고 생각한 것 /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게 되기까지 / 클래식은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한다 등)

##### II. 전하다

(음악을 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음악의 원점에 대해 생각하다 / 악보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등)

##### III. 알다

(음악과 시각과 청각의 문제 / 시각과 청각의 엇갈림은 왜 일어나는 걸까? / 음악은 시간축과 공간축 위에 만들어진 건축물? 등)

##### IV. 생각하다

(이스라엘 필을 듣고 생각한 것 / ‘유대인’과 예술표현에 대해 / 하모니를 위한 혁명적인 방법론-평균율 등)

##### V. 만들다

(곡은 언제 완성할까? / 「‘지금’ 시대 속에서 작곡한다는 것」 대담: 히사이시 조×코누마 준이치)

#### <저자소개>

히사이시 조

1950년,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구니타치음악대학 재학 시절부터 미니멀 뮤직에 흥미를 가졌으며 현대 음악 작곡가로 출발하였다. 1984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후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굿 바이(원제: 오쿠리비토)》, 이상일 감독의 《악인》,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카구야히메 이야기》, 야마다 요지 감독의 《작은 집》 등 수많은 화제작의 음악을 맡았고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음악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2009년, 자수포장을 수훈하였다.

2004년부터 「신일본 필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W.D.O.)」의 음악감독으로서 자신의 연주활동에서도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스타일의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클래식 지휘자로서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 곡 작품을 쓰는 등, 활동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구니타치음악대학 초빙교수, 나가노 시 예술관 예술감독도 맡고 있다.

No.20161005-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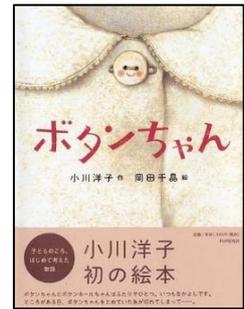
제목: 단추

저자: 오가와 요코(글), 오카다 치아키(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11월 12일



### <내용소개>

**동글동글 단추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알게 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녀 '안나'가 외출할 때 즐겨 입는 블라우스의 가장 위쪽에 달려 있는 단추는 동그란 얼굴의 여자아이입니다. 어느 날, 단추를 붙들고 있던 실이 끊어지면서 블라우스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함께였던 단춧구멍의 얼굴이 점점 멀어져 가고, 바닥으로 떨어진 단추는 데굴데굴 굴러 장난감 상자에 도착합니다. 이제껏 블라우스 밖에 몰랐던 단추는 다소 어둑어둑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안나가 아기 때 쓰던 딸랑딸랑 장난감과 턱받침 수건, 잠들 때마다 꼭 안았던 곰 인형을 만납니다.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들 덕분에 안나가 혼자서도 눈물을 닦고 깨끗하게 밥을 먹고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단추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단추는 다행히도 안나의 엄마가 발견하여 블라우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장난감과 턱받침 수건, 곰 인형도 엄마가 준비한 추억 상자 안에 곱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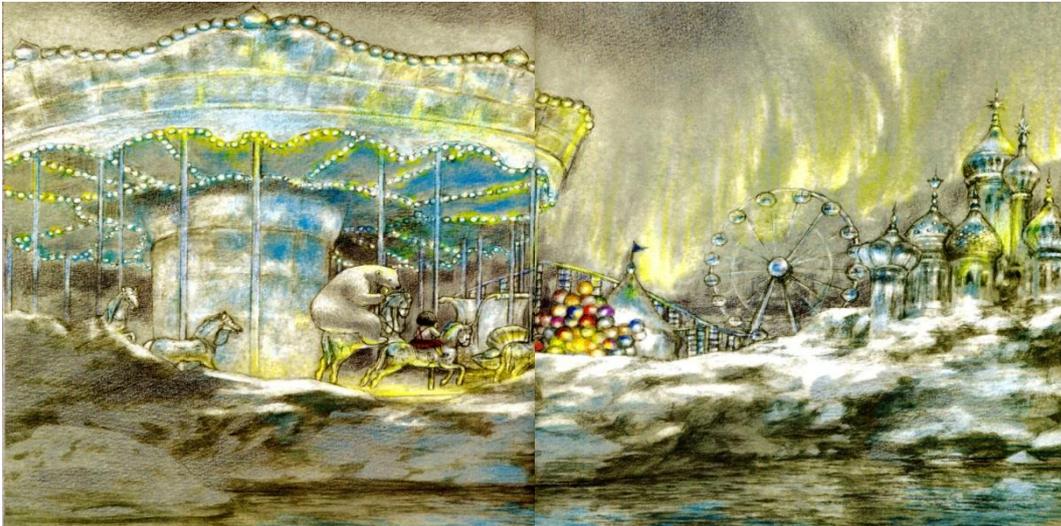
유명 소설가 오가와 요코의 첫 아동 그림책입니다.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을 의인화 하여 그들의 시각에서 아이의 성장을 다뤘습니다. 엄마에게도 와 닿을 내용입니다. 4~5세 아동부터 재미 있게 읽을 수 있으며, 부드럽고 따스한 이미지의 그림이 가슴 뭉클한 여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





「こんなところでぼくほひとりぼっちです。  
アンナちゃんももう、  
ぼくのことなどわすれ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か。  
ぼくのこのカシャカシャで、泣き顔のアンナちゃんを、  
何度笑い顔に変えたかわからないというのに」



#### <저자소개>

오가와 요코(글)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제 1 문학부 문예과를 졸업했다. 1988 년 「상처입은 호랑나비」로 제 7 회 가이엔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1991 년 「임신캘린더」로 제 104 회 아쿠타가와 상, 2004 년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제 55 회 요미우리 문학상과 제 1 회 서점대상, 같은 해에 《브라만의 매장》으로 제 32 회 이즈미 교카 문학상을 받았으며 2006 년 《미나의 행진》으로 제 42 회 타니자키 준이치로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세상 끝 아케이드》, 《고양이를 안고 코끼리와 헤엄치다》, 《인질의 낭독회》, 《마음과 마주 향하는 독서안내》등의 저서가 있다.

오카다 치아키(그림)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세트 모드 세미나를 졸업하였다. 아이의 섬세한 표정과 몸짓, 일상 속에서 우연한 장면을 골라내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다.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 2010 을 비롯해 다수의 입선, 입상 경력이 있다. 그림책에는 《토끼와 하루》, 《아이를 믿는 것》, 《이제 곧, 이제 곧》,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등이 있다.

No.20161005-010

제목: 최후의 비밀

저자: 이토 히로시

페이지수: 4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3월 30일



### <내용소개>

소년들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다? 풍부한 상상력이 빛나는 그림책입니다.

소년 '나'에게는 초등학교에 들어와 처음 사귀 친구 '미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미리는 몰래 나에게만 알려주곤 합니다. 2번 가의 어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실은 멸종된 일본 늑대를 천재 과학자가 되살려 놓은 것이라던가, 3번 가 연못의 개구리들은 마녀의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변해버린 아이들이라던가, 4번 가에 위치한 생선가게와 정육점 주인들에게 사무라이의 영혼이 쓰여있었다던가, 5번 가의 맨홀 속에는 악어와 뱀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다던가 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의 입에서 끝없이 나오는 비밀 이야기에 나는 매우 설렙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는 자기가 안드로메다에서 온 우주인이라고 밝힙니다. 가족들도 모두 인간인 척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지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미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비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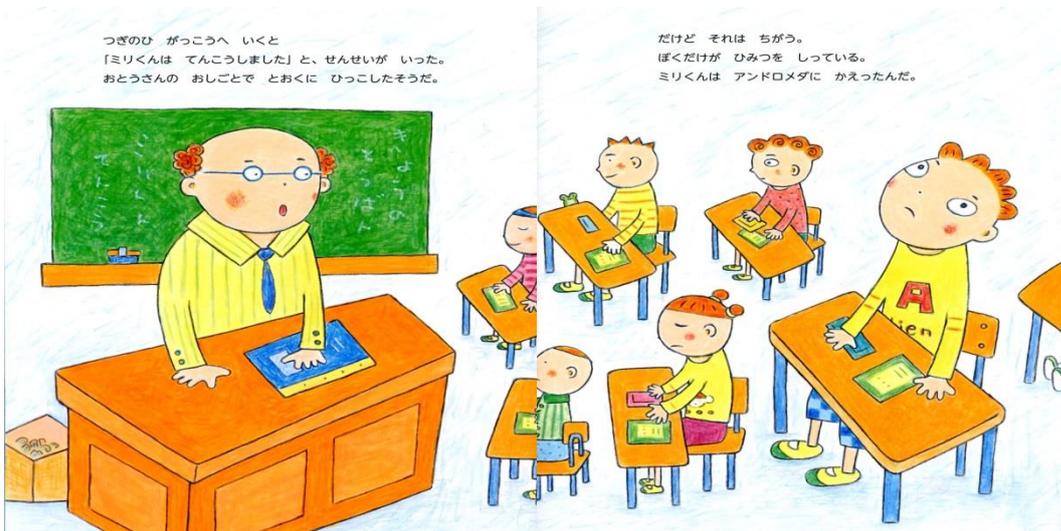
친구 미리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나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색연필로 섬세하게 터 치한 일러스트와 알기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 그림 책을 읽는 아이들도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을까'라며 상상의 나라를 펴게 될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





おかしを たべた。こどもたちは、  
いつのまにか ねことか こうもりとか かえるに なっちゃう。  
つきよの ばんには、てしたを ひきつれた まじよが  
ほうきに のって とんでいくのが みられるよ。



つぎのひ がっこうへ いくと  
「ミリくんは てんこうしました」と、せんせいが いった。  
おとうさんの おしごとで とおくに ひっこしたそうだ。

だけど それは ちがう。  
ぼくだけが ひみつを している。  
ミリくんは アンドロメダに かえったんだ。

### <저자소개>

이토 히로시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원숭이의 매일매일》시리즈, 《루랄 씨의 정원》시리즈, 《둘이서 미아》, 《고양이와 친구》, 《맨홀에서 안녕》, 《엄마의 산책 1,2》, 《고양이의 이름》등이 있다.